

전남대의대 내년 수시 100% 호남 지역인재 선발

의료인력 부족 현상 완화 위해 지역 문호 넓혀 정원 78명 전원 광주·전남 고교생 선발 제한하는 전북지역 대학 향후 행보 주목

전남대학교가 2024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수시전형 전체 정원을 호남지역 출신 고교생으로 선발한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 의료 소외 지역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의대 문호가 대폭 개방돼 주목된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대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의대정원으로 총 127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수시전형으로 선발하는 78명 전원을 광주와 전남·북 고교 출신으로 뽑는다. 선발 대상은 호남지역 고교 전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다. 수시전형에서 학생부교과 성적(내신 성적)로 지역인재를 100% 뽑는 것은 호남권 대학 가운데 전남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시·정시를 통틀어 전남대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71.65%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전남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대를 두고 있는 조선대(59.05%), 전북대(62.67%), 원광대(44.32%) 등 호남권 4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전남대가 지역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

시교육청이 그동안 전남대 등 호남권 대학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70% 이상 대폭 확대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온 결과로도 풀이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수 있도록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꾸준히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대가 호남지역 고교 출신 학생들에게 의대 문호를 대폭 개방함에 따라 전북지역 대학에 눈길이 쏠린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의대전형에서 광주, 전남·북 고교 출신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출신지와 교교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비율에 대한 제한도 없다. 반면 전북지역 대학은 광주, 전남 출신 고교생들의 선발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전북대 의대는 정원 142명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62.67%로 유지하면서도 전북 고교출신에 52.8%를 할당하고 있다. 광주·전남 고교출신자는 9.8%로 선발비율을 묶어두고 있다. 원광대의 의대정원 97명 가운데 전북 출신 지역인재 34%를 선발하고 10.3%만을 광주·전남 고교출신자로 채우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역 우수인재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전남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남대처럼 지역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광주지역의 대가 전북지역에도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있는만큼 전북 지역대학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진도 공장서 설비 폭발사고 차량 등 파손... 인명피해는 없어

진도의 한 자원 순환 공장에서 설비가 시범가동 중 폭발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께 진도군 고군면의 한 자원순환 공장 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로 샌드위치 패널-철골 구조 공장동-사무동(563㎡)과 차량 2대가 파손되고 인근 주택가 유리창도 깨졌다. 폭발당시 작업자들은 설비 반대편에서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폭발 사고로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잠정 1억 1325만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열분해 설비 시동 과정에서 유증기 압력 상승으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민 기자 kdi@

내 아내 그만 만나라고 했지만... 불륜관계 지속한 남성 찌른 남편

광주지법, 징역 3년 6월 선고

결별 중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던 남성을 흥기로 찌른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 2020년부터 C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돈까지 빌려준 것을 알게 됐다. 택시기사인 C씨는 지난 2020년 3월 B씨와 승객으로 만나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의 카드를 받아 3200만원 사용했다. 차량 구입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기도 하고 휴대전화 요금까지 지원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에 C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아내와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B씨는 불륜관계와 채무관계를 A씨에게 실

도했다. A씨 부부는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B씨는 다시 남편을 속이고 C씨를 만나 금전을 지원했다. 지난 6월 A씨는 아내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앱을 통해 아내가 내연남과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A씨는 아내와 술을 마시던 C씨에게 불륜관계를 추궁했으나 부인하자 흥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달아나는 C씨를 쫓아가 재차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C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후유장애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서 "생명을 침해하려 한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의 연탄 배달합니다. 광주지역 중·고·대학생 청소년 적십자(RCY) 봉사단 회원들이 4일 오전 남구 사직동 저소득 가정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미국 대학 입학 미끼 43억 사기 일당 수사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자녀를 미국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필요한 영주권 발급 편의를 봐주겠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과 가족 등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49)씨를 최근 구속한 데 이어, 가족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재미교포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해 43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속인 A씨는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아야 하지만 본사를 통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B씨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글로벌 의료기기의 한국지사 대표라면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의료업체의 투자를 제안했지만,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각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스토킹 피해 10명 중 8명 "경찰 개입이 효과적"

광주여성가족재단 실태 조사

광주지역 스토킹(Stalking) 피해자 10명 중 8명이 '경찰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성가족재단(재단)이 최근 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스토킹 인식 및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들은 경찰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87.2%)이라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스토커에 진심 어린 애원과 설득',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사했다'는 응답도 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피해 발생 시 즉각 필요한 대응으로는 응답자 29.1%가 가해자와 분리 및 보호(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조치 및 대응이 28.5%, 출퇴근길 동행 등 확실한 안심기가 지원 14.1% 순이었다. 2차 가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2.0%가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86.5%가 면식 관계였고, 비면식 관계는 12.1%였다. 친밀도 기준으로 보면 헤어진 연인이 28.2%로 가장 많았고 지인 16.1%, 현재 연인관계가 15.7% 순이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가 사는 집·직장·학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맴돌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가 78.7%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행위 경험 후 피해자 전체 49.3%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28.5%는 '화가 났다', 10.0%는 '이해가 되면서 불안했다'고 답변했다. 스토킹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재단이 지난달 말 펴낸 '광주지역 스토킹 피해실태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광주지역 스토킹 112신고는 415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40건에 불과했던 광주지역 스토킹 신고가 2019년 79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41건으로 주춤했지만, 2021년 307건으로 폭증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